환경오염 <2001년1월 535개> 위반업소

2001년1월 환경부가 환경오염업소를 단속한 결과 535건의 환경관련법 위반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.

환경부가 2001년1월 전국 각 시·도 환경관리청의 단속공무원 연인원 1만1833명을 동원해 6821개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환경관련법령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7.8%에 상당하는 535건의 위반사실이 적발돼 의법 조치했다.

환경법 위반업소(2001.1)

회사명(종별)	위반사항	행정조치
섬진산업(2종)	공공수역에 B-C유 50ℓ 유출	고 발
대웅섬유(3종)	배출허용기준초과 - 음이온계면활성제: 9.94mg/ℓ (기준: 5)	개선명령
삼양제넥스(1종)	배출허용기준초과 -BOD : 90mg/ℓ (기준: 80)	개선명령
SK(3종)	공공수역에 노말헥산약 20ℓ 유출	고발
한국티타늄(1종)	방지시설비정상가동으로폐수유출	조업정지30일 및고발
송원산업(2종)	배출허용기준초과 -COD : 173.2%mg/ℓ (기준: 130)	개선명령
효성용연1공장(2종)	방지시설비정상가동으로PP 폐수에 냉각수약4톤희석처리	조업정지10일 및고발
지성실업1공장(3종)	배출허용기준초과 -BOD : 132.1mg/ℓ (기준: 80) -COD : 127mg/ℓ (기준: 90)	개선명령
조광실업(3종)	배출허용기준초과 -SS : 114mg/ℓ (기준: 90)	개선명령

† 수질분야

환경관련법 위반사항(2001.1)

구 분	업소수
단 속	6 821
위 반	535
위반내역	
배출허용기준초과	141
방지시설 비정상가동	68
무허가	210
기 타	116
조치내용	
개선명령	128
조업정지	78
사용중지	140
폐쇄명령	74
기 타	106
고 발	220

환경오염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채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,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등 오염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한 업소로는 한국티타늄, 효성 용연1공장, 섬진산업, SK, 세영섬유, 유일피혁 등 220개소를 적발해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했다.

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삼양제넥스, 송원산업, 지성실업 1공장, 조광실업, 대웅섬유, 한국특수유리, 한비섬유, 성서염직, 삼양통상 등 141개소에는 시설 개선명령이나 조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배출부과금을 병과했다.

수질분야 환경법 위반업소 중 대웅섬유(박종락)는 음이온계면활성제를 배출허용기준 5mg/ℓ를 초과한 9.94mg/ℓ를 배출해 개선명령을 받았다.

삼양제넥스도 BOD를 배출허용기준 80mg/ℓ를 초과한 90mg/ℓ를 배출한 이유로 개선명령을 받았다.

B-C유를 50리터 유출한 섬진산업과 공공수역에 노말헥산을 유출한 SK는 고발됐다.

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한 사유로 한국티타늄은 30일 조업정지 및 고발조치를, 효성 용연1공장은 10일 조업정지 및 고발조치를 받았다.

<화학저널 2001/4/9>